

# 少陽人 主要 處方 간의 性格 및 素證 差異에 관한 研究

김성태 · 최애련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Abstract

### A Study on Personality and Ordinary Symptoms according to Soyangin's Major Constitutional Medicine

Seong-Tae Kim, Ae-Ryun Choi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Univ.*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Personality and Ordinary Symptoms of Soyangin and to compare the tendency of their personality and symptoms according to Soyangin's major prescription.

#### Methods

331 Soyangin's personality and ordinary symptoms data registered to SCIB(Sasang Constitutional Information Bank) were used. All data were analyzed with Chi square test. Some data were ranked and analyzed with Kruskal-Wallis test and Mann-Whitney test(with Bonferroni correction). Chi square and Kruskal-Wallis test's significant P value was 0.05. Mann-Whitney test's significant P value was 0.005.

#### Results & Conclusions

In Chi square test, there is difference in personality and symptoms in Soyangin's major prescription as followed, the degree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e degree of patience, the condition of stool, the degree of appetite, good or bad in digesting, amount of meal, the speed of eating, amount of drinking water, the temperature of drinking water, coldness and hotness in abdomen or not. In Kruskal-Wallis test and Mann-Whitney test, Yanggyuksanhwa-tang is more masculine than Dokhwajihwang-tang, Hyeongbongsabaek-san, Hyeongbangjihwang-tang. Dokhwajihwang-tang is less appetite than Yanggyuksanhwa-tang and Hyeongbongsabaek-san. Yanggyuksanhwa-tang is more fast in eating than Hyeongbangjihwang-tang.

*Key Words*: Soyang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Personality, Ordinary Symtoms.

## I. 緒論

동일한 치료법, 약물, 음식 등에 대해서 사람은 서로 다른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개체에 따라 다른 반응은 표준적인 의료를 정립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이를 해결하고자 의학은 인간의 유형화를 꾸준히 시도하여 왔으며, 이 각각이 다양한 체질론으로 나타나게 되고 한의학에서는 한의학 발생 초기의 문헌인 內經에서부터 五行人論, 陰陽人論 등의 유형화 시도가 나타나며 李濟馬에 의한 四象醫學 이론으로 정리가 되었다.

체질론이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性格, 體形, 素證, 藥物에 대한 반응들이다. 이 중 性格과 素證은 외부의 영향, 몸의 상태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생 변치 않는 체질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체질이 존재한다면 性格과 素證 역시 체질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일 것이다. 또한 비교적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나타나는 性格과 素證은 현상에서의 몸과 마음의 경향성을 나타내므로 임상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sup>1</sup>.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sup>2</sup>에서 用藥에 있어 知人과 知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1</sup>). 그 중 證에 대해서는 「少陰人 泛論」<sup>3</sup>에서 生理的證과 病理的證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sup>2</sup>).

여기서 말하는 生理的證이란 素證을 의미하는 것으로,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과 「肝受熱裏熱病論」<sup>2</sup>에서 病證의 발현에 있어서 素證의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sup>3)4)</sup>. 이렇게 사상의학에서 素證은 病證 발현의 차이를 유발하여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출발점이 되고, 따라서 素證

과 病證 모두 四象醫學의 病證 관리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로서 중요시하였다<sup>4</sup>.

또한 『東醫壽世保元』<sup>2</sup> 「四端論」과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및 「太陽人 外感腰脊病論」<sup>5</sup>에서 性情이 四臟 형성의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病證을 유발시키며 치료의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sup>5)6)7)</sup>. 그리고 송<sup>6</sup>은 마음의 조절을 통한 신체 不調和의 자연적 조절을 이야기하여 사상의학에서 性情은 養生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性情 및 素證에 관해서 체질을 진단하는 요소나 건강 평가의 척도로서의 활용 등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素證에서 김 등<sup>8</sup>이 문진표를 중심으로 體質素證의 특성을 밝혔고, 체질별로 대변<sup>8</sup>, 땀<sup>9</sup>, 수면<sup>10</sup>, 소화<sup>11</sup> 특성에 대한 상세연구가 있어 왔다. 체질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요소로서 素證 특성이 규명되기도 하였다<sup>12-14</sup>. 최근에는 박 등<sup>15</sup>의 체질 내 병증에 따른 素證의 차이나 장 등<sup>16</sup>의 체질별 표리에 따른 素證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다음 性情에 관해서는 김 등<sup>17</sup>이 性情 설문지의 체질 변별력에 대해 연구했고, 고 등<sup>18</sup>이 性情의 病證 발생 이전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다. 박 등<sup>19</sup>, 성 등<sup>20</sup>이 성격과 기타 성격 검사방법과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되기도 하였다.

이상 四象醫學에서는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건강을 위한 수양의 기본으로 喜怒哀樂 性情의 中節을 제시하였고 이는 질병의 예방차원 뿐만 아니라 性情의 升降緩束의 조절을 통해 치료한다는 사상의학의 치료원칙이 된다. 또한 素證이 체질진단 뿐만 아니라 건강의 평가 및 病證管理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이들 性格과 素證에 관해 현재도 연구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임상 치료에 있어 핵심이 되는 처방 宣用 과정에서 활용되는 指標로서의 연구는

1)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明知其人而 又明知其證則 應用之藥 必無可疑”

2)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泛論」, “蓋有病者 明知其證則 必不可不服藥 無病者 雖明知其證 必不可服藥”

3)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胃脘受寒表寒病論」, “大凡瘟疫 先察其人素病如何則 表裏虛實可知已 素病寒者 得瘟疫則 亦寒證也. 素病熱者 得瘟疫則 亦熱證也 素病輕者 得瘟疫則 重證也. 素病重者 得瘟疫則 險證也”

4)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肝受熱裏熱病論」, “論曰 太陰人 面色青白者 多無燥證 面色黃赤黑者 多有燥證”

5)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太陽人 哀性遠散 而怒情促急...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6) 『東醫壽世保元』 「少陰人 胃受寒裏寒病論」, “論曰 少陰人 喜好不定 而計窮力屈 則心煩躁也”

7) 『東醫壽世保元』 「太陽人 外感腰脊病論」, “論曰 此證即太陽人 腰脊病 太重證也 必戒深哀 遠嗔怒 修清定然後 其病可愈”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少陽人의 다빈도 처방인 導赤降氣湯, 獨活地黃湯, 涼膈散火湯, 荊防瀉白散, 荊防地黃湯의 처방에 따른 性格 및 素證의 차이를 살펴보고 性格과 素證을 활용하여 처방을 宣用하는 지표를 만들고자 하였다.

## II. 方法

### 1. 대상자 선정

다가관 한방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임상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한국한의학회연구원의 체질정보은행(Constitutional Information Bank)의 증례를 활용하였다. 2009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수집된 임상자료 중 체질을 확진 받고 성격, 소증 설문항목에 응답한 소양인 331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2. 성격, 소증 지표

성격 및 소증의 측정 도구로 증례기록지(저작물번호:제 C-2009-002439호)의 항목 중 성격은 15문항(별첨 1), 소증은 식사(3문항), 소화(3문항), 땀(2문항), 대변(6문항), 소변(1문항), 한열(4문항), 음수(2문항), 수면(1문항)을 포함한 총 22문항(별첨 2)을 활용하였다. 소증 항목은 증례기록지의 소증 문항 중 임상에서 체질진단 및 병증 추정에 주로 활용되며 단순응답으로 평가가 용이한 문항을 선택하였다.

### 3. 체질 진단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상체질 전문의에 의해 체질을 진단 받고 의무기록상 최소 60첩 이상 동체질 처방을 투여 받고 최소 4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경과를 관찰한 사람들 중에서 부작용이 없으며 主所證과 素證, 病證이 일정 정도 이상 호전된 경우 해당 체질로 확진하였다.

### 4. 처방 선택

체질을 확진 후 복용하였던 처방 중 의무기록상 가장 투약량이 많은 체질 처방을 환자의 대표처방으로 분류하였고, 少陽人체질에서 가장 빈용된 대표 처방 5가지를 주요 처방으로 선택하였다. 주요 처방은 導赤降氣湯, 獨活地黃湯, 涼膈散火湯, 荊防瀉白散, 荊防地黃湯이다.

### 5.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고, 동일 체질 내 처방별 성격, 소증 문항의 응답빈도수 차이는 Chi 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그 중 응답의 서열화가 가능한 성격 모든 문항 및 소증 일부 문항에 대해서 개별 처방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ruskal-Wallis test와 사후 검정으로 Mann-Whitney test(with Bonferroni correction)를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Chi square test 및 Kruskal-Wallis test는  $p$ -value<0.05, Mann-Whitney test는  $P$ -value<0.005로 하였다.

## III. 結果

### 1. 일반적 특성

少陽人체질 내 처방에 따른 분포는 導赤降氣湯群(이하 DG)이 남자 5, 여자 22, 총 27명, 獨活地黃湯群(이하 DJ)이 남자 14, 여자 70, 총 84명, 涼膈散火湯群(이하 YS)이 남자 43, 여자 37, 총 80명, 荊防瀉白散群(이하 HS)이 남자 14, 여자 15, 총 29명, 荊防地黃湯群(이하 HJ)이 남자 29, 여자 82, 총 111명이 고, 평균 연령은 DG가 50.2세, DJ이 47.3세 YS이 51.3세, HS이 39.7세, HJ이 47.2세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oyangin

Variable	Total	Sex		Age(yr)	Height(cm)	Weight(kg)	
		Male	Female				
Soyangin	DG	27	5(18.5)	22(81.5)	50.2 ± 12.8	158.1 ± 6.5	57.0 ± 3.6
	DJ	84	14(16.7)	70(83.3)	47.3 ± 15.6	158.9 ± 8.2	57.1 ± 9.7
	YS	80	43(53.8)	37(46.2)	51.3 ± 13.8	161.9 ± 8.7	63.3 ± 9.4
	HS	29	14(48.3)	15(51.7)	39.7 ± 15.5	163.3 ± 9.6	58.9 ± 10.7
	HJ	111	29(26.1)	82(73.9)	47.2 ± 15.7	159.0 ± 7.8	55.9 ± 8.2

Values are expressed as n(%) or mean ± S.D., Abbreviation; DG = *Dojeokgangki-tang* group, DJ = *Dokbwaljibwang-tang* group, YS = *Yanggyuksanbwa-tang* group, HS = *Hyungbangsabaek-san* group, HJ = *Hyeongbangjibwang-tang* group.

Table 2. Personality of Soyangin in Chi Square Test

Variable		Prescription					p-value
		DG	DJ	YS	HS	HJ	
Generous or Delicate	generous	8(29.6)	18(21.4)	27(33.8)	1(3.4)	24(21.6)	.107
	normal	9(33.3)	35(41.7)	28(36.3)	15(51.7)	51(45.9)	
	delicate	10(37.0)	31(36.9)	24(30.0)	13(44.8)	36(32.4)	
Speed of Acting	Fast	19(70.4)	53(63.1)	56(70.0)	17(58.6)	68(61.3)	.808
	normal	5(18.5)	19(22.6)	16(20.0)	6(20.7)	30(27.0)	
	slow	3(11.1)	12(14.3)	8(10.0)	6(20.7)	13(11.7)	
Active or Passive	active	12(44.4)	40(47.6)	53(66.3)	14(48.3)	58(52.3)	.071
	normal	9(33.3)	33(39.3)	19(23.8)	8(27.6)	43(38.7)	
	passive	6(22.2)	11(13.1)	8(10.0)	7(24.1)	10(9.0)	
Speaking	directly	16(59.3)	35(41.7)	47(58.8)	18(62.1)	51(45.9)	.093
	normal	7(25.9)	19(22.6)	12(15.0)	5(17.2)	33(29.7)	
	indirectly	4(14.8)	30(35.7)	21(26.3)	6(20.7)	27(24.3)	
Give up	easily	11(40.7)	36(42.9)	35(43.8)	9(31.0)	43(38.7)	.338
	normal	9(33.3)	30(35.7)	18(22.5)	13(44.8)	43(38.7)	
	hardly	7(25.9)	18(21.4)	27(33.8)	7(24.1)	25(22.5)	
Extroverted or Introverted	extroverted	5(18.5)	21(25.0)	31(38.8)	10(34.5)	34(30.6)	.220
	normal	9(33.3)	32(38.1)	19(23.8)	6(20.7)	41(36.9)	
	introverted	13(48.1)	31(36.9)	30(37.5)	13(44.8)	36(32.4)	
Dynamic or Static	dynamic	17(63.0)	37(44.0)	49(61.3)	14(48.3)	43(53.7)	.053
	normal	4(14.8)	22(26.2)	14(17.5)	8(27.6)	40(29.5)	
	static	6(22.2)	25(29.8)	17(21.3)	7(24.1)	28(27.8)	
Decisions	easily	11(40.7)	36(42.9)	37(46.3)	8(27.6)	45(40.5)	.399
	normal	7(25.9)	18(21.4)	12(15.0)	6(20.7)	31(27.9)	
	difficultly	9(33.3)	30(35.7)	31(38.8)	15(51.7)	35(31.5)	
Masculinity or Femininity	masculine	8(29.7)	17(20.2)	48(60.0)	6(20.7)	31(27.9)	.000*
	normal	10(37.0)	32(38.1)	19(23.7)	15(51.7)	47(42.4)	
	feminine	9(33.3)	35(41.7)	13(16.3)	8(27.6)	33(29.7)	
Patience	less patient	9(33.3)	10(11.9)	22(27.5)	3(10.3)	35(31.6)	.030*
	normal	3(11.1)	25(29.8)	18(22.5)	9(31.0)	24(21.6)	
	more patient	15(55.6)	49(58.3)	40(50.0)	17(58.7)	52(46.8)	
Changing of emotion	large	15(55.6)	40(47.6)	35(43.8)	11(37.9)	42(37.8)	.614
	normal	9(33.3)	26(31.0)	25(31.3)	11(37.9)	46(41.4)	
	small	3(11.1)	18(21.4)	20(25.0)	7(24.1)	23(20.7)	
Unbosom myself	easily	11(40.7)	24(28.6)	25(31.3)	10(34.5)	38(34.2)	.436
	normal	3(11.1)	25(29.8)	22(27.5)	4(13.8)	33(29.7)	
	hardly	13(48.1)	35(41.7)	33(41.3)	15(51.7)	40(36.0)	
Declaring	easily	10(37.0)	39(46.4)	41(51.3)	14(48.3)	56(50.5)	.565
	normal	10(37.0)	29(34.5)	16(20.0)	8(27.6)	31(27.9)	
	hardly	7(25.9)	16(19.0)	23(28.8)	7(24.1)	24(21.6)	
Excited or Reasonable	excited	19(70.4)	47(56.0)	48(60.0)	20(69.0)	62(55.9)	.279
	normal	3(11.1)	17(20.2)	14(17.5)	7(24.1)	31(27.9)	
	reasonable	5(18.5)	20(23.8)	18(22.5)	2(6.9)	18(16.2)	
Careless or Meticulous	careless	10(37.0)	16(19.0)	21(26.3)	7(24.1)	33(29.7)	.660
	normal	8(39.6)	30(35.7)	25(31.3)	7(24.1)	33(29.7)	
	meticulous	9(33.3)	38(45.2)	34(42.5)	15(51.7)	45(40.5)	

Values are expressed as n(%), \* ; p<0.05

## 2. 성격

少陽人은 응답분포 검사 상 남성적·여성적 정도, 참을성의 정도에서, 상관관계 분석 상 남성적·여성적 정도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남성적·여성적 정도에서 응답분포 검사 상 '남성적', '보통', '여성적'에 각 DG이 각 29.7%, 37.0%, 33.3%, DJ이 각 20.2%, 38.1%, 41.7%, YS이 각 60.0%, 23.7%, 16.3%, HS이 각 20.7%, 51.7%, 27.6%, HJ이 각 27.9%, 42.4%, 29.7%,  $p$ -value<0.05로 분포차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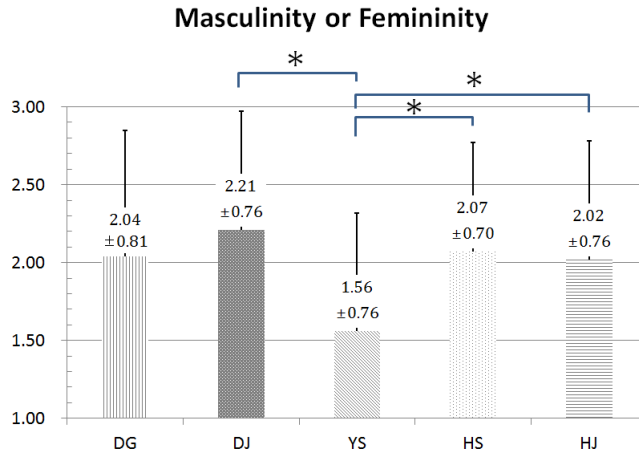


Figure 1. Personality of Soyangin-masculinity or femininity in mann-whitney test.

Note DG = *Dojeokgangki-tang* group, DJ = *Dokbwaljibwang-tang* group, YS = *Yanggyuksanbwa-tang* group, HS = *Hyungbangsabaek-san* group, HJ = *Hyeongbangjibwang-tang* group.  
 1 : masculine, 2 : normal, 3 : feminin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YS is more masculine than DJ, HS and HJ(\* $p$ <0.005).

Table 3. Personality of Soyangin in KW Test

Variable	Prescription					$\chi^2$ -value	p-value
	DG	DJ	YS	HS	HJ		
Generous or Delicate	2.07 ± 0.83	2.15 ± 0.75	1.96 ± 0.80	2.41 ± 0.57	2.11 ± 0.73	7.57	.109
Speed of Acting	1.41 ± 0.69	1.51 ± 0.74	1.40 ± 0.67	1.62 ± 0.82	1.50 ± 0.70	2.63	.622
Active or Passive	1.59 ± 0.84	1.86 ± 0.85	1.60 ± 0.82	1.76 ± 0.83	1.86 ± 0.79	8.27	.082
Speaking	1.56 ± 0.75	1.94 ± 0.88	1.68 ± 0.87	1.59 ± 0.83	1.78 ± 0.81	7.71	.103
Give up	1.85 ± 0.82	1.79 ± 0.78	1.90 ± 0.88	1.93 ± 0.75	1.82 ± 0.76	1.15	.886
Extroverted or Introverted	2.30 ± 0.76	2.12 ± 0.78	1.99 ± 0.88	2.10 ± 0.90	2.02 ± 0.80	3.56	.468
Dynamic or Static	1.78 ± 0.80	1.65 ± 0.70	1.44 ± 0.67	1.76 ± 0.83	1.57 ± 0.66	8.03	.091
Decisions	1.93 ± 0.87	1.93 ± 0.89	1.93 ± 0.93	2.24 ± 0.87	1.91 ± 0.85	3.51	.477
Masculinity or Femininity	2.04 ± 0.81	2.21 ± 0.76	1.56 ± 0.76	2.07 ± 0.70	2.02 ± 0.76	30.52	.000*
Patience	2.22 ± 0.93	2.46 ± 0.70	2.23 ± 0.86	2.48 ± 0.69	2.15 ± 0.88	7.37	.118
Changing of emotion	1.56 ± 0.70	1.74 ± 0.79	1.81 ± 0.81	1.86 ± 0.79	1.83 ± 0.75	3.56	.469
Unbosom myself	2.07 ± 0.96	2.13 ± 0.83	2.10 ± 0.85	2.17 ± 0.93	2.02 ± 0.84	1.32	.857
Declaring	1.89 ± 0.80	1.73 ± 0.77	1.78 ± 0.87	1.76 ± 0.83	1.71 ± 0.80	1.22	.874
Excited or Reasonable	1.48 ± 0.80	1.68 ± 0.84	1.63 ± 0.83	1.38 ± 0.62	1.60 ± 0.75	3.54	.471
Careless or Meticulous	1.96 ± 0.85	2.26 ± 0.76	2.16 ± 0.82	2.28 ± 0.84	2.11 ± 0.84	3.72	.445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 ;  $p$ <0.05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2). 상관관계 분석 상 DG가 2.04 ± 0.81, DJ이 2.21 ± 0.76, YS이 1.56 ± 0.76, HS이 2.07 ± 0.70, HJ이 2.02 ± 0.76, *p*-value<0.05로 처방간의 차이를 보였으며(Table 3), 사후 검정 상 YS과 DJ간, YS과 HS간, YS과 HJ간에 *P*-value<0.005으로 YS이 DJ, HS, HJ보다 남성적인 성격으로 나타났다(Figure 1).

참을성의 정도에서 응답분포 검사 상 ‘참을성 부족’, ‘보통’, ‘잘 참는다’에 DG가 각 33.3%, 11.1%, 55.6%, DJ이 각 11.9%, 29.8%, 58.3%, YS이 각 27.5%, 22.5%, 50.0%, HS이 각 10.3%, 31.0%, 58.7%, HJ이 각 31.6%, 21.6%, 46.8%, *p*-value<0.05로 분포차이에 유의성이 있었으나(Table 2) 상관관계 분석 상 DG가 2.22 ± 0.93, DJ이 2.46 ± 0.70, YS이 2.23 ± 0.86, HS이 2.48 ± 0.69, HJ이 2.15 ± 0.88로 처방간의 차이는 없었다 (Table 3).

### 3. 소증

少陽人은 응답분포 검사 상 식사 양, 식사 속도, 소화의 정도, 입맛의 정도, 대변의 양상, 한열양상-배

부위, 음수의 양, 음수의 온도에서, 상관관계 분석 상 식사 속도, 입맛의 정도에서 응답의 분포차이를 보였다.

식사 양에서 응답분포 검사 상 ‘많다’, ‘중간’, ‘적다’, ‘일정하지 않다’에 DG가 각 18.5%, 59.3%, 3.7%, 18.5%, DJ이 각 6.0%, 57.1%, 19.0%, 17.9%, YS이 각 20.0%, 57.5%, 15.0%, 7.5%, HS이 각 3.4%, 75.9%, 6.9%, 13.8%, HJ이 각 4.5%, 65.8%, 20.7%, 9.0%, *p*-value<0.05로 분포차이에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4).

식사 속도에서 응답분포 검사 상 ‘빨리 먹는다’, ‘중간’, ‘천천히 먹는다’에 DG가 각 63.0%, 11.1%, 25.9%, DJ이 각 44.0%, 40.5%, 15.5%, YS이 각 63.8%, 27.5%, 8.8%, HS이 각 37.9%, 48.3%, 13.8%, HJ이 각 42.3%, 36.9%, 20.7%, *p*-value<0.05로 분포차이에 유의성이 있었다(Table 4). 상관관계 분석 상 DG가 1.63 ± 0.88, DJ이 1.71 ± 0.72, YS이 1.45 ± 0.65, HS이 1.76 ± 0.69, HJ이 1.78 ± 0.77, *p*-value<0.05로 처방간의 차이를 보였으며(Table 5) 사후 검정 상 YS과 HJ간 *P*-value<0.005로 YS이 HJ보다 식사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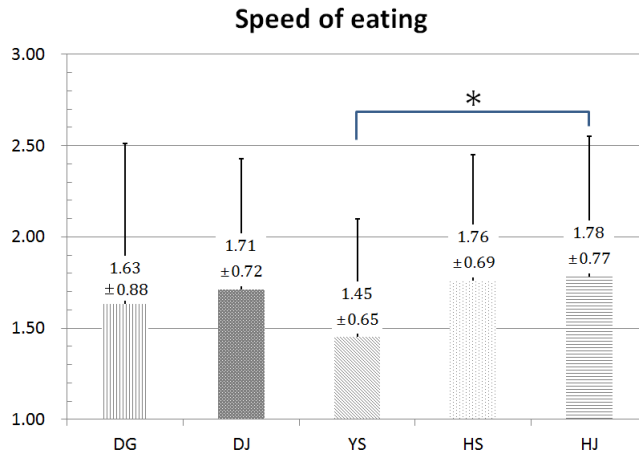


Figure 2. Ordinary symptoms of Soyangin-speed of eating in mann-whitney test.

Note DG = *Dojeokgangki-tang* group, DJ = *Dokbwaljibwang-tang* group, YS = *Yanggyuksanbwa-tang* group, HS = *Hyungbangsabaek-san* group, HJ = *Hyeongbangjibwang-tang* group.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1 : fast, 2 : normal, 3 : slow

YS is faster than HJ in eating(\**p*<0.005).

Table 4. Ordinary Symptoms of Soyangin in Chi Square Test

Variable		Prescription					p-value
		DG	DJ	YS	HS	HJ	
Eating habits	regular	20(74.1)	51(60.7)	49(61.2)	23(79.3)	80(72.1)	.158
	irregular	7(25.9)	33(39.3)	31(38.8)	6(20.7)	31(27.9)	
Amount of meal	much	5(18.5)	5(6.0)	16(20.0)	1(3.4)	5(4.5)	.003*
	normal	16(59.3)	48(57.1)	46(57.5)	22(75.9)	73(65.8)	
	little	1(3.7)	16(19.0)	12(15.0)	2(6.9)	23(20.7)	
Speed of eating	irregular	5(18.5)	15(17.9)	6(7.5)	4(13.8)	10(9.0)	.008*
	fast	17(63.0)	37(44.0)	51(63.8)	11(37.9)	47(42.3)	
	normal	3(11.1)	34(40.5)	22(27.5)	14(48.3)	41(36.9)	
Digesting	slow	7(25.9)	13(15.5)	7(8.8)	4(13.8)	23(20.7)	.000*
	good	21(77.8)	49(58.3)	71(88.8)	24(82.8)	74(66.7)	
	bad	6(22.2)	35(41.7)	9(11.2)	5(17.2)	37(33.3)	
If digesting bad	comfort	5(83.3)	27(77.1)	6(75.0)	3(60.0)	29(78.4)	.909
	discomfort	1(16.7)	8(22.9)	2(25.0)	2(40.0)	8(21.6)	
	too much	0(0.0)	4(4.8)	6(7.5)	1(3.4)	5(4.5)	
The degree of appetite	better	16(59.3)	24(28.6)	44(55.0)	17(58.6)	44(39.6)	.004*
	normal	11(40.7)	41(48.8)	23(28.8)	11(37.9)	52(46.8)	
	worse	0(0.0)	15(17.9)	7(8.8)	0(0.0)	10(9.0)	
Sweating	much	5(18.5)	18(21.4)	27(33.8)	6(20.7)	19(17.1)	.137
	normal	7(25.9)	23(27.4)	24(30.0)	12(41.4)	40(36.0)	
	little	14(51.9)	30(35.7)	23(28.8)	10(34.5)	42(37.8)	
	none	1(3.7)	13(15.5)	6(7.5)	1(3.4)	10(9.0)	
Feeling after sweat	fresh	12(44.4)	29(34.9)	35(43.8)	6(20.7)	37(33.3)	.582
	tired	7(25.9)	24(28.9)	19(23.8)	10(34.5)	35(31.5)	
	nothing	8(29.6)	30(36.1)	26(32.5)	13(44.8)	39(35.1)	
Defecation habits	regular	16(59.3)	44(52.4)	52(65.0)	22(75.9)	75(67.6)	.115
	irregular	11(40.7)	40(47.6)	28(35.0)	7(24.1)	36(32.4)	
Time of defecation	fast	12(44.4)	31(36.9)	33(41.3)	12(41.4)	51(45.9)	.308
	normal	10(37.0)	32(38.1)	32(40.0)	11(37.9)	50(45.0)	
	slow	5(18.5)	21(25.0)	15(18.7)	6(20.7)	10(9.1)	
Thickness of stool	thin	7(25.9)	23(27.4)	12(15.0)	6(20.7)	24(21.6)	.270
	normal	13(48.1)	47(56.0)	56(70.0)	20(69.0)	75(67.6)	
	thick	7(25.9)	14(16.7)	12(15.0)	3(10.3)	12(10.8)	
Stiffness of stool	hard form	4(14.8)	12(14.3)	9(11.3)	1(3.4)	10(9.0)	.710
	normal	17(63.0)	58(69.0)	52(65.0)	23(79.3)	75(67.6)	
	loose form	6(22.2)	14(16.7)	19(23.8)	5(17.2)	26(23.4)	
	diarrhea	1(3.7)	5(6.0)	2(2.5)	1(3.4)	6(5.4)	
The condition of stool	constipation	8(29.6)	15(17.9)	12(15.0)	0(0.0)	5(4.5)	.011*
	in diarrhea and constipation turns	1(3.7)	3(3.6)	2(2.5)	1(3.4)	6(5.4)	
	depend on foods	7(25.9)	34(40.5)	27(33.8)	13(44.8)	59(53.2)	
The feeling during or after defecation	normal	10(37.0)	27(32.1)	37(46.3)	14(48.3)	35(31.5)	.051
	fresh	17(63.0)	62(73.8)	58(72.5)	19(65.5)	94(84.7)	
Intensity of urine	discomfort	10(37.0)	22(26.2)	22(27.5)	10(34.5)	17(15.3)	.493
	strong	5(18.5)	7(8.3)	8(10.0)	4(13.8)	9(8.1)	
	normal	16(59.3)	53(63.1)	50(62.5)	18(62.1)	82(73.9)	
Dislike for heat or cold	weak	6(22.2)	24(28.6)	22(27.5)	7(24.1)	20(18.0)	.959
	cold	12(44.4)	39(46.4)	29(36.3)	15(51.7)	53(47.7)	
	heat	9(33.3)	26(31.0)	26(32.5)	8(27.6)	30(27.0)	
	both of all	4(14.8)	13(15.5)	15(18.8)	4(13.8)	16(14.4)	
Coldness and Hotness in hand	none	2(7.4)	6(7.1)	10(12.5)	2(6.9)	12(10.8)	.212
	worm	10(37.0)	17(20.2)	30(37.5)	12(41.4)	31(27.9)	
	normal	6(22.2)	23(27.4)	19(23.8)	2(6.9)	34(30.6)	
	cold	10(37.0)	42(50.0)	30(37.5)	15(51.7)	43(38.7)	
	unknown	1(3.7)	2(2.4)	1(1.2)	0(0.0)	3(2.8)	

Variable		Prescription					p-value
		DG	DJ	YS	HS	HJ	
Coldness and Hotness in foot	worm	8(29.6)	14(16.7)	23(28.7)	4(13.8)	22(19.8)	.828
	normal	7(25.9)	21(25.0)	16(20.0)	8(27.6)	27(24.3)	
	cold	11(40.7)	46(54.8)	40(50.0)	16(55.2)	58(52.3)	
	unknown	1(3.8)	3(3.5)	1(1.3)	1(3.4)	4(3.6)	
Coldness and Hotness in abdomen	worm	9(39.1)	39(26.4)	5(8.9)	35(23.2)	3(10.3)	.005*
	normal	7(30.4)	52(35.1)	12(21.5)	53(35.1)	13(44.8)	
	cold	6(26.1)	51(34.5)	35(62.5)	59(39.1)	10(34.6)	
	unknown	1(4.4)	6(4.0)	4(7.1)	4(2.6)	3(10.3)	
Amount of drinking water	much	9(33.3)	12(14.3)	25(31.3)	10(34.5)	20(18.0)	.006*
	normal	15(55.6)	27(32.1)	22(27.5)	9(31.0)	41(36.9)	
	little	3(11.1)	32(38.1)	24(30.0)	7(24.2)	43(38.7)	
The temperature of drinking water	little and often	0(0.0)	13(15.5)	9(11.2)	3(10.3)	7(6.3)	.025*
	mostly worm	12(44.5)	24(28.6)	15(18.8)	5(17.2)	34(30.6)	
	mostly cold	11(40.7)	33(39.3)	50(62.5)	17(58.7)	47(42.3)	
	all is fair	4(14.8)	27(32.1)	15(18.7)	7(24.1)	30(27.1)	
Frequency of dream	very often	1(3.7)	5(6.0)	3(3.8)	1(3.4)	2(1.8)	.764
	often	10(37.0)	17(20.2)	17(21.2)	8(27.6)	25(22.5)	
	infrequently	9(33.3)	44(52.4)	44(55.0)	14(48.3)	55(49.5)	
	none	7(25.9)	18(21.4)	16(20.0)	6(20.7)	29(26.1)	

Values are expressed as n(%), \* ; p<0.05

소화의 정도에서 응답분포 검사 상 '예', '아니오'에 DG가 각 77.8%, 22.2%, DJ이 각 58.3%, 41.7%, YS이 각 88.8%, 11.2%, HS이 각 82.8%, 17.2%, HJ이 66.7%, 33.3%, p-value<0.05로 분포차이에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4).

입맛의 정도에서 응답분포 검사 상 '지나치게 좋음', '좋은 편', '중간', '안좋은 편'에 DG가 각 0.0%, 59.3%, 40.7%, 0.0%, DJ이 각 4.8%, 28.6%, 48.8%, 17.9%, YS이 각 7.5%, 55.0%, 28.8%, 8.8%, HS이 3.4%, 58.6%, 37.9%, 0.0%, HJ이 각 4.5%, 39.6%, 46.8%, 9.0%, p-value<0.05로 분포차이에 유의성이 있게 나타났고 (Table 4), 상관관계 분석 상 DG가 2.41 ± 0.50, DJ이 2.80 ± 0.79, YS이 2.39 ± 0.76, HS이 2.34 ± 0.55, HJ이 2.60 ± 0.72, p-value<0.05로 처방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Table 5), 사후 검정 상 DJ과 YS간, DJ과 HS간 P-value<0.005로 DJ이 YS, HS보다 입맛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

대변의 양상에서 응답분포 검사 상 '설사', '변비', '변비설사 교대', '음식따라 다름', '보통'에 DG가 각 3.7%, 29.6%, 3.7%, 25.9%, 37.0%, DJ이 각 6.0%, 17.9%, 3.6%, 40.5%, 32.1%, YS이 각 2.5%, 15.0%, 2.5%, 33.8%, 46.3%, HS이 각 3.4%, 0.0%, 3.4%,

44.8%, 48.3% HJ이 각 5.4%, 4.5%, 5.4%, 53.2%, 31.5%, p-value<0.05로 분포차이에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4).

한열양상-배 부위에서 응답분포 검사 상 '배가 따뜻하다', '중간', '배가 차다', '잘 모름'에 DG가 각 39.1%, 30.4%, 26.1%, 4.4%, DJ이 각 26.4%, 35.1%, 34.5%, 4.0%, YS이 각 8.9%, 21.5%, 62.5%, 7.1%, HS이 각 23.2%, 35.1%, 39.1%, 2.6% HJ이 각 10.3%, 44.8%, 34.6%, 10.3%, p-value<0.05로 분포차이에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4).

음수의 양에서 응답분포 검사 상 '많다', '중간', '조금', '조금씩 자주'에 DG가 각 33.3%, 55.6%, 11.1%, 0.0%, DJ이 각 14.3%, 32.1%, 38.1%, 15.5%, YS이 각 31.3%, 27.5%, 30.0%, 11.2%, HS이 각 34.5%, 31.0%, 24.2%, 10.3% HJ이 각 18.0%, 36.9%, 38.7%, 6.3%, p-value<0.05로 분포차이에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4).

음수의 온도에서 응답분포 검사 상 '주로 따뜻한 물', '주로 찬 물', '가리지 않고 마신다'에 DG가 각 44.5%, 40.7%, 14.8%, DJ이 각 28.6%, 39.3%, 32.1%, YS이 각 18.8%, 62.5%, 18.7%, HS이 각 17.2%, 58.7%, 24.1%, HJ이 각 30.6%, 42.3%, 27.1%, p-value<0.05로 분포차이에 유의성이 있었다 (Tabl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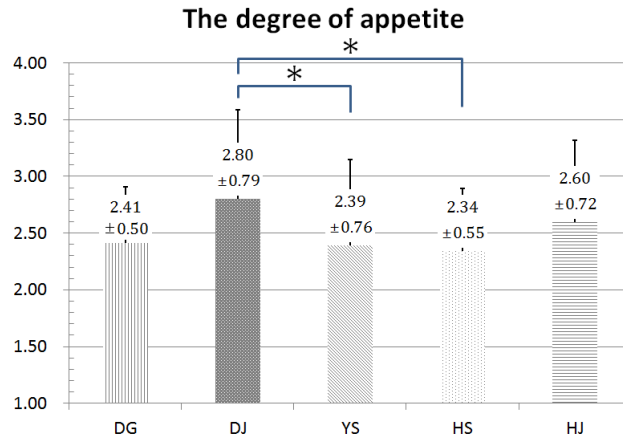


Figure 3. Ordinary symptoms of Soyangin-the degree of appetite in mann-whitney test.

Note DG = Dojeokgangki-tang group, DJ = Dokbwaljibuwang-tang group, YS = Yanggyuksanbwa-tang group, HS = Hyungbangsabaek-san group, HJ = Hyeongbangjibuwang-tang group.  
 1 : too much, 2 : better, 3 : normal, 4 : wors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DJ is less appetite than YS, HS(\*p<0.005).

Table 5. Ordinary Symptoms of Soyangin in KW Test

Variable	Prescription					χ <sup>2</sup> -value	p-value
	DG	DJ	YS	HS	HJ		
Speed of eating	1.63 ± 0.88	1.71 ± 0.72	1.45 ± 0.65	1.76 ± 0.69	1.78 ± 0.77	11.45	.022*
The degree of appetite	2.41 ± 0.50	2.80 ± 0.79	2.39 ± 0.76	2.34 ± 0.55	2.60 ± 0.72	18.62	.001*
Sweating	2.41 ± 0.84	2.45 ± 0.99	2.10 ± 0.96	2.21 ± 0.82	2.39 ± 0.88	7.40	.116
Time of defecation	1.74 ± 0.76	1.88 ± 0.78	1.78 ± 0.75	1.79 ± 0.77	1.63 ± 0.65	4.90	.298
Thickness of stool	2.00 ± 0.73	1.89 ± 0.66	2.00 ± 0.55	1.90 ± 0.56	1.89 ± 0.56	2.32	.677
Stiffness of stool	2.07 ± 0.62	2.02 ± 0.56	2.13 ± 0.58	2.14 ± 0.44	2.13 ± 0.58	2.54	.638
Intensity of urine	2.04 ± 0.65	2.20 ± 0.58	2.17 ± 0.59	2.10 ± 0.62	2.10 ± 0.50	2.98	.561
Frequency of dream	2.81 ± 0.88	2.89 ± 0.81	2.91 ± 0.75	2.86 ± 0.79	3.00 ± 0.75	1.76	.78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 ; p<0.05

#### IV. 考 察

四象體質病證관리의 목적은 각 체질에 따른 保命之主의 확보에 있고, 保命之主는 각 體質에 적용되는 恒心과 完實無病의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李濟馬는 四象人의 恒心과 完實無病의 조건을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sup>2)</sup>에서 제시하고 있다<sup>8)</sup>. 즉 恒心의 조건에서 정신적으로 불안하지 않

고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어야 하고, 完實無病의 肉體의 조건에서 太陽人은 리소변이 되어야 건강하고 少陽人은 변비가 없어야 건강하고, 太陰人은 땀이 잘 나와야 건강하고, 少陰人은 소화가 잘 되어야 건강하다고 하였다. 결국 四象人의 정신상태, 소변, 한, 대변, 소화상태 등은 四象人의 有病·無病의 조건을

少陽人 恒有懼心…;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太陽人 恒有急迫之心…; “太陽人 小便旺多則 完實而無病, 太陰人 汗液通暢則 完實而無病, 少陽人 大便善通則 完實而無病, 少陰人 飲食善化則 完實而無病”

8)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太陰人 恒有怯心….”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病證管理의 지표가 되고 이들 조건들이 무난히 수행되면 體質病證管理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sup>21</sup>.

性情과 素證에 대해서 체질별 특성이나 타 성격 유형 검사와의 연관성 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의 연구로 고 등<sup>18</sup>은性情에 의한 表裏病證 발생기전을 연구했으나 문헌적 고찰에 그치고 있고, 박 등<sup>15</sup>이 단일 病證내 처방 간의 素證 차이를, 장 등<sup>16</sup>이 체질별 表裏에 따른 素證의 특성 차이를 연구하였으나 表裏 진단의 지표 혹은 한정된 病證 내 처방의 宣用 지표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처방 간에 성격과 素證의 차이를 연구하여 表裏를 아울러 처방 宣用に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양인의 다빈도 처방인 導赤降氣湯, 獨活地黃湯, 涼膈散火湯, 荊防瀉白散, 荊防地黃湯의 성격 및 素證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導赤降氣湯은 『東醫壽世保元』<sup>2</sup>의 荊防導赤散에 근거한 처방이다.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의 結胸證 條文에 荊防導赤散에 茯苓과 澤瀉를 각 1錢 씩 加味한 예가 나오며 『東醫四象新編』<sup>22</sup>에 이 加味方이 導赤降氣湯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荊防導赤散은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sup>2</sup>에서 表陰之氣가 내려오지 못하고 熱邪의 막힘을 받아서 일어나는 脾受寒表寒病중에, 太陽病으로부터 少陽傷風證으로 轉變한 頭痛, 胸膈煩燥한 證을 치료하는 代表的인 處方으로 荊防導赤散을 사용하였다<sup>9)</sup>. 荊防導赤散의 處方構成을 살펴보면, 生地黃, 木桶, 玄蔘, 瓜蒌仁, 前胡, 羌活, 獨活, 荊芥, 防風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生地黃은 入心腎하여 瀉火清金하며, 木桶은 心火를 내리며 清肺熱한다. 玄蔘은 清相火하고 補陰의 효과가 있으며, 瓜蒌仁은 胸膈의 火를

瀉하여 煩滿症을 除去한다. 前胡는 健脾하며 降火下氣하는 작용이 있으며 羌活과 獨活로 下焦膀胱之邪를 구축하며, 荊芥 防風을 사용하여 胸膈과 頭目的 火를 發散시킨다<sup>23</sup>. 導赤降氣湯은 이에 茯苓과 澤瀉를 加味하여 降陰과 利水의 효과를 강화하였다.

獨活地黃湯은 『醫學正傳』<sup>24</sup>의 六味地黃湯에서 기원하여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sup>25</sup>의 瓜蒌仁地黃湯과 獨活防風湯에서 유래된 처방으로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의 「新定 少陽人病 應用要藥 十七方」에 처음 등장하였다. 본 처방은 六味地黃湯에 山藥을 빼고 獨活과 防風을 加味한 것으로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sup>2</sup>에서 陰虛午熱 背寒而嘔하는 下消證 단계에 十二味地黃湯과 같이 활용하였다. 또 「少陽人 泛論」에서 中風·嘔吐에 그리고 瘧疾의 瘧不發日에 활용함을 기술하였고, 新定要方에서는 食滯痞滿者에 宣用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獨活地黃湯의 處方構成을 살펴보면 熟地黃, 山茱萸, 茯苓, 澤瀉, 牡丹皮, 防風, 獨活 등의 藥物로 構成되어 熟地黃은 補腎和腎하고, 山茱萸는 健腎直腎며, 茯苓은 固腎立腎, 澤瀉는 壯腎而外揚之勢하고, 防風, 獨活은 解腎之表邪한다.

涼膈散火湯은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sup>2</sup>에서 清陽上升을 강조하였는데<sup>10)</sup>, 治療法으로 裏熱을 식혀주고 補眞陰하여 腎局의 清陽을 上升시켜주는 方法을 사용하였으며, 涼膈散火湯을 胃受熱裏熱病의 胸膈熱證을 治療하는 代表的인 處方으로 사용하였다. 涼膈散火湯의 處方構成을 살펴보면, 生地黃, 忍冬藤, 連翹, 梔子, 薄荷, 知母, 石膏, 防風, 荊芥등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石膏는 火熱을 抑制하고, 知母는 石膏의 擘으로 補陰의 方面에서 火熱로 인한 陰虛를 없애며, 生地黃으로는 中上焦의 火熱을 治하고, 忍冬

9)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少陽人 傷寒病 有再痛發汗而 愈者 此病 非再三感風寒而 再痛發汗三痛發汗也 少陽人 頭痛 腦強 寒熱往來 耳聾 胸滿 尤甚之證 元來如此 表邪深結 至於三痛然後 方解也 無論初痛再痛三痛 用荊防導赤散」

10)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胃受熱裏熱病論」, “平心靜思則 陽氣上升 輕清而 充足於頭面四肢也 此元氣也 清陽也 勞心焦思則 陽氣下陷 重濁而 鬱熱於頭面四肢也 此火氣也 耗陽也”

藤과 連翹는 火熱로 인한 瘡毒性 병변을 다스리고, 梔子로 心胸의 증상을 除하고, 薄荷의 上向清利 작용으로 火熱로 인한 頭痛을 치료하는 등 이와 같이 上焦의 諸症에 관한 효능을 荊芥와 防風의 開通的 작용이 補助하게 되는 의미를 지녔다<sup>23</sup>.

荊防瀉白散은 『醫學入門』<sup>26</sup>의 瀉白散을 기원으로 『傷寒論』<sup>27</sup>의 白虎湯과 五苓散에 石膏, 知母, 茯苓, 澤瀉에 羌活, 獨活, 荊芥, 防風등이 첨가된 처방으로 少陽人 頭痛, 膀胱痛, 煩躁한 少陽證과 身熱, 頭痛, 泄瀉 亡陰證을 치료한다<sup>2</sup>. 荊防瀉白散의 處方構成을 살펴보면 生地黃은 心과 腎에 들어가 瀉內火 清燥金하는 작용이 있고, 石膏는 위의 敗熱을 제거하고 腎의 元氣를 살린다. 腎에서 肺로 清氣를 上升시키는 澤瀉, 肺의 邪熱을 배설하고 膀胱을 통리시키는 茯苓, 腎의 邪熱을 배설하고 清肺하는 知母 세 가지로 肺熱을 배설하여 降陰시키는 작용을 한다. 마지막으로 荊芥·防風·羌活·獨活은 解鬱을 통해 降陰시킨다<sup>28</sup>.

荊防地黃湯은 『醫學正傳』<sup>24</sup>의 六味地黃湯과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sup>25</sup>의 黃柏地黃湯에서 유래된 처방으로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 처음 등장하는 처방이다. 주로 少陽人 表證의 身寒·泄瀉·亡陰證과 浮腫의 初結症 그리고 頭腹痛·慢泄瀉·凡虛弱者에 활용되는 처방으로 地黃白虎湯보다 降陰의 약력이 10배나 강한 처방으로 기술되어 있다<sup>2</sup>. 荊防地黃湯의 處方構成을 살펴보면 熟地黃은 腎水를 滋養하고, 山茱萸는 固精하고 陰氣를 수렴하여 火亢을 막는다. 그리고 茯苓과 澤瀉는 滲濕利尿하여 肺, 膀胱의 邪熱을 배설시켜주며, 車前子는 開水道하면서 固精하는 작용이 있고, 荊芥·防風·羌活·獨活은 解鬱을 통해 降陰시킨다<sup>28</sup>.

少陽人의 性格과 素證을 살펴보면 남성적·여성적 항목에서 YS이 DJ, HS, HJ보다 '남성적' 응답비율이 높다. 이는 涼膈散火湯은 裏熱病 처방으로 表寒病 처방인 荊防瀉白散, 荊防地黃湯보다 上熱證이 두드러진다. 또한 같은 裏熱病 처방인 獨活地黃湯은 熟地黃이 君藥이 되어 陰虛午熱, 食滯痞

滿 등 陰虛로 인한 燥證을 主治하나 涼膈散火湯은 石膏과 知母 등으로 구성되어 胸膈熱證, 上焦鬱熱을 主治한다. 이러한 YS의 熱證 특성으로 인해 陽的 경향인 남성적 성격에 많이 응답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을성에 있어서는 少陽人 5가지 처방군 모두 '잘 참는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東醫壽世保元』 「四端論」<sup>2</sup>에서 少陽人이 怒性이 강하고<sup>11)</sup>, 앞서 행동이 빠르고 동적인 경향성을 나타내어 '참을성 부족' 응답비율이 높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모두 '잘 참는다'로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박 등<sup>19</sup>의 연구에서 少陽人이 비웃음이나 놀림에 대해 담담하게 대처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결과와 비슷하다. 이에 다른 체질과의 비교연구 및 주관적 설문 응답이 아닌 자극에 대한 반응과 행동을 살펴보는 객관적 실험을 통해 참을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 성격 항목 중 유의성은 없었으나 행동의 적극적·소극적, 말의 직접·간접적 항목에서 少陽人 5가지 처방군 모두 '적극적', '직접'의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는 『東醫壽世保元』 「擴充論」과 「四象人辨證論」<sup>2</sup>에서 少陽人이 적극적이고 용감하다는 내용과 연결된다<sup>2)13)</sup>. 이에 행동의 적극성, 말의 직접적 표현을 少陽人 성격 특성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가끔 흥분·이성적 항목에서 少陽人 5가지 처방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5가지 처방군 모두 가끔 흥분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가끔 흥분' 응답은 '이성적' 응답의 반대로서 인내심의 정도가 아닌 비이성적 행동의 의미로 평가해야 한다. 『四象醫學原論』 「附錄-體質論」<sup>29</sup>에서 少陽人의 비이성적 측면을 말하였다<sup>4)</sup>. 하지만 박 등<sup>19</sup>의 연구에서는 太陰人과

11)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少陽人 怒性宏抱而 哀情促急…”

12) 『東醫壽世保元』 「擴充論」 “少陽之性氣 恒欲舉而不欲措”, “少陽之情氣 恒欲外勝而不欲內守”

13)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 “少陽人性質 長於剛武”

14) 『四象醫學原論』 「附錄-體質論」 “少陽人은… 쓸데없는 이론을 싫어하며 말할 때는 논리적이 못된다.”

少陽人の 정연성이 少陰人보다 떨어진다는 하여 가끔 흥분하는 것을 少陽人만의 성격적 특성 및 체질진단 기준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식사 속도에 있어서 YS이 HJ보다 식사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涼膈散火湯은 胸膈熱證, 上消 등 淸陽이 不升하여 鬱滯된 熱證을 主治하고, 荊防地黃湯은 亡陰證의 身寒腹痛泄瀉, 凡虛弱者에 사용되어 消化器 증상 및 寒證을 主治하여, 이들 두 처방군의 寒熱 특성과 病證 발현 부위의 차이가 식사 속도에 차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입맛의 정도에서 DJ이 YS, HS보다 입맛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獨活地黃湯은 熟地黃, 山茱萸로 구성되어 위산이 부족하거나 위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난 食滯痞滿을 치료하나 涼膈散火湯, 荊防瀉白散은 石膏, 知母로 구성되어 위산과다, 善食善飢, 嘈雜 등을 치료하여<sup>30</sup> 이들 처방군의 위점막의 燥濕과 위 기능의 차이가 입맛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장 등<sup>16</sup>의 연구에서는 少陽人 裏病群이 表病群보다 입맛이 좋다는 본 연구와 일부 반대되는 결과를 제시하여 이후 주요 처방군 내에서 표리병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화 정도와 대변양상에서 HJ과 DJ은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음식에 따라 대변양상이 달라지는 비율이 다른 처방군 보다 크다. 앞서 입맛의 정도에서 DJ의 위 기능 저하를 설명한 바 있다. 荊防地黃湯은 이 등<sup>31</sup>, 박 등<sup>32</sup>이 少陽人 軟便, 泄瀉 환자에 荊防地黃湯을 사용한 치험례가 있고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sup>2</sup>에서 亡陰證 身寒腹痛泄瀉를 주치하여 HJ이 소화기의 음식 민감도나 기기장애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식사의 양에 있어서 少陽人 5가지 처방군 모두 ‘중간의 응답비율이 높아 앞서 식사 속도, 입맛의 정도, 소화의 정도에서 일부 처방군간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 먹는 양 자체는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東醫壽世保元』 「四端論」<sup>2</sup>에서 脾臟이 水穀의 納入을 주관하고 少陽人은 脾火가 旺盛한 生理, 病理의 특성을 가진다<sup>5)</sup>. 이에 少陽人 5가지 처방군 모두

식사 양을 보통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열양상-배 부위에 있어 HJ은 ‘중간’의 응답비율이 높으나 다른 처방군은 ‘차다’에 응답비율이 높다. 이는 HJ이 소화기능장애로 인해 앞서 식사의 속도, 대변양상, 소화의 정도에서 다른 처방군과 차이를 보인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에 少陽人은 배 부위의 자각적인 冷感과 소화기 장애를 연계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음수 양에 있어 YS과 HS이 다른 少陽人 처방군보다 음수 양이 많게 나타났다. 涼膈散火湯은 多飲의 특징적 증상을 가진 上消에 사용되며 荊防瀉白散은 咽乾의 증상이 나타나는 少陽傷風證이나 실제 체액이 소실되는 亡陰證 泄瀉에 사용되어 두 처방군이 음수 양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음수 온도에 있어서 DG만 ‘주로 뜨거운 물’ 응답비율이 높고 다른 처방군은 ‘주로 찬물’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少陽人은 기본적으로 熱證의 生理, 病理 특성을 가지고, 導赤降氣湯도 生地黃, 木通으로 구성되어 胸膈의 火로 인한 結胸證을 치료하여 DG역시 熱證 발현이 두드러지지만 주로 따뜻한 물을 마신다고 나타났다. 이는 추후 음수의 온도, 음수의 양, 음수의 헛수에서 정성이 아닌 정량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 소증 항목 중 유의성은 없었으나 한열양상-발 부위와 더위와 추위의 기피 항목에서 少陽人 5가지 처방군 모두 발 부위가 차고 추위를 더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과 「胃受熱裡熱病論」<sup>2</sup>에서 表陰의 울체로 인한 寒證과 裏病에서 熱의 부위적인 偏重을 말하였다<sup>6)17)</sup>. 少陽人은 기본적으로 熱證의 生理를 가지나 病的인 상태에서는 이러한 表陰鬱滯, 裏熱偏重으로 인해 발에 冷感을 느끼고, 추위를 더 싫

15) 『東醫壽世保元』 「四端論」 “脾以納 腎以出 腎脾者 出納水穀之府庫也”

16)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脾受寒表寒病論」 “腎局陰氣爲熱邪所陷而…膠固因滯之病也”, “陽盛格陰於下則…此所謂內炭外冰 陰將亡之兆也”

17) 『東醫壽世保元』 「少陽人 胃受熱裡熱病論」 “勞心焦思則陽氣 下陷重濁 而鬱熱於頭面四肢也”

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少陽人 신체부위의 寒熱의 자각적 정도와 실제 온도 간에 관한 연구나 냉각에 대한 민감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 少陽人에 있어 性格, 素證을 처방 宣用 지표보다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중 개별 간 처방을 보인 남성적·여성적 경향성이나 식사 속도, 입맛의 정도 항목이 주목된다. 단 함 등<sup>4</sup>의 연구에서도 제기되었듯 아직 病證과 素證의 경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病證이나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환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일반화하기에 처방군의 대상자 수도 적어 실제 임상에서 이들 病證, 질병을 제외한 素證 단독 지표로 처방을 宣用 할 수 있을 지는 향후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V. 結 論

少陽人 주요 처방 간 性格과 素證 설문지의 응답 분포차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少陽人은 性格항목 중 남성적·여성적 정도, 참을성의 정도에서 유의한 응답 분포차를 보였고, 상관관계 분석 상 남성적·여성적 정도에서 YS이 DJ, HS, HJ보다 남성적인 성격으로 나타났다.

少陽人은 素證항목 중 식사 속도, 소화의 정도, 입맛의 정도, 대변의 양상, 한열양상-배 부위, 음수의 양, 음수의 온도에서 유의한 응답 분포차를 보였고 상관관계 분석 상 식사 속도에서 YS이 HJ보다 식사 속도가 빠른 것으로, 입맛의 정도에서 DJ이 YS, HS보다 입맛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 性格 및 素證의 일부 항목에서 少陽人의 체질 내 처방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응답 분포의 차는 아직 임상에서 활용하기 힘들다, 상관관계 상 차이가 나는 항목은 처방 宣用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少陽人 외 다른 사상 체질을 포함하고, 또한 각 체질의 대상자 수를 늘린

추가 연구를 통해 임상치료의 체질처방 宣用에 있어 性格, 素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VI. 參 考 文 獻

1. Kim MG. A study for corelation between action type and physical symptoms in child. Graduate School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 2007:1. (Korean)
2. Lee JM. Dongyisusebowon. Seoul : Yeogang press. 2002:34-36, 48, 51, 56, 107, 155-156, 158, 161, 164-165, 184, 230, 234, 236, 246, 253, 277, 279, 281.
3. Song IB.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Sasang constitution physiology and pathology. J Sasang Constitut Med. 1994;6(1):71-79. (Korean)
4. Ham TI, Hwang MW, Lee TK, Kim SB, Lee SK, Koh BH, et al The clinical study on ordinary symptoms and pathological symptoms of stroke in-patients based o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 Sasang Constitut Med. 2004;16(3):34-45. (Korean)
5. Koh BH, Koo DM, Kim KY, Kim DL, Kim IH, Kim JY, et al.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 l: Jipmoondang. 2006:315, 392, 394-395, 412, 420, 663, 638-639, 723.
6. Song IB. Easy to lear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 : Hanamedia. 1993:219-221.
7. Kim YW, Kim JW. A clinical study of the type of disease and symptom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J Sasang Constitut Med. 1999;11(1): 119-135. (Korean)
8. Choi JY, Park SS. A clinical study of stool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2;14(2):58-68. (Korean)
9. Choi JY, Lee YS, Park SS. A clinical study of perspira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 Constitut Med. 2002;23(4):186-195. (Korean)
10. Choi JR, Park SS. A clinical study of sleep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3; 15(3):204-215. (Korean)
  11. Baek TH, Choi JR, Park SS. A correlation research of digestion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4;16(1):186-195. (Korean)
  12. Lee JC, Lee HJ, Lee YJ, Kim KH, Kim SH, Lee SW, et al. Relations between the questionnaire and health state in each sasang constitution based on the oriental medical doctor's diagnoses. J Sasang Constitut Med. 2011;23(1):108-114. (Korean)
  13. Jang ES, Yoo JH, Baek YW, Kim HS, Kim JY, Lee SW. The association between symptom evaluation index and health state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in Women.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3):107-121. (Korean)
  14. Jang ES, Kim HS, Yoo JH, Baek YW, OH SY, Lee SW. A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sasang health index and THI(Todai Health Index) score by sasang constitutions.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2):43-52. (Korean)
  15. Park YG, Hong HJ, Kim YH, Hwang MW. The cross-sectional study on characteristics between soyangin heat-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headache and soyangin cold-related diarrhea accompanied by abdominal pain. J Sasang Constitut Med. 2011;23(2):240-253. (Korean)
  16. Jang ES, Baek YH, Park KH, Lee SW. Biological change by forest healing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 preliminary study. J Sasang Constitut Med. 2012;24(1):43-53. (Korean)
  17. Kim JY, Kim HG.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question categories concerning 'sasang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mind'. J Sasang Constitut Med. 2003;15(3): 124-138. (Korean)
  18. Ko WS, Lee SK, Lee EJ, Ko BH, Song IB. Study for the mechanism of exterior, interior disease by the nature and emo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4; 16(2):44-51. (Korean)
  19. Park HI, Lee KI. A Study of personality traits in sasang constitution according to comparative analysis of QSCCII & NEO-P-I-R. J Sasang Constitut Med. 2000; 12(2):104-122. (Korean)
  20. Sung JH. Korea MBTI laboratory. The comparative questionnaire study of the spirit of sasang constitution with the MBTI classification of character. J Sasang Constitut Med. 2001;13(2):156-164. (Korean)
  21. Lee JH, Koh BH, Song IB. Clinical study on the constitutional symptomatic pattern of soyangin and taemin inpatients in stroke. J Sasang Constitut Med. 2000;12(1):129. (Korean)
  22. Won JS. Dongyisasangshinpyun. Seoul : Jeongdam press. 2002:132, 189, 191.
  23. Lee SY, Choi AR, Ha JH, Lee JH, Kim PJ, Goo DM.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anti-stress effect by soyangin hyeongbangdojeok-san and yanggyeok-sanhwa-tang.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3):151-163. (Korean)
  24. Woo D. Yixuezhengzhuan. Seongnam : Seongbo press. 1986:157.
  25. Park SS. Dongyisusebowon sasangchobongwon. Seoul : Jipmoondang. 2010:318-319, 323.
  26. Lee C. Euihakipmun. Seoul : Bubin press. 2009:2128.
  27. Moon JJ. Hyundaesanghalon. Seoul : Hanyi press. 2005:154, 290.
  28. Cho HS. Principle and prescription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 : Jipmoondang. 2011:317-319, 336-338, 402-404.
  29. Lee JM. Sasangeuihakwonlon. Seoul : Hanglim press. 1995:380, 382.
  30. Ryu JY. Dongeuisasangeuihakgangjyua. Seoul : Daesung press. 1999:528-529.
  31. Lee SG, Lee EJ, Koh BH, Song IB. Soyangin man-geum-disease case study. J Sasang Constitut Med. 2001;13(3):151-154. (Korean)

32. Park HS, Joo JC, Kim HS, Bae YC. A case study of the shaoyangin mangyin improved with hyeongbang-  
jiwhang-tang. J Sasang Constitut Med. 2002;14(2):120-124. (Korean)

<별첨1> 성격 설문지

성격 설문지					
1. 성격이 대범하신가요? 섬세하신가요?	대범	①	②	③	섬세
2. 행동이 빠른 편인가요? 느린 편인가요?	빠르다	①	②	③	느리다
3. 매사에 적극적인가요? 소극적인가요?	적극적	①	②	③	소극적
4. 말 또는 표현을 대놓고 하는 편인가요? 돌려서 하는 편인가요?	직접	①	②	③	간접
5. 포기가 빠른가요? 느린가요?	포기 빠름	①	②	③	포기 느림
6. 성격이 외향적인가요? 내성적인가요?	외향	①	②	③	내성
7. 평소 활동적인 편인가요? 조용한 편인가요?	동적	①	②	③	정적
8. 결정을 쉽게 하는 편인가요? 어려움을 겪는 편인가요?	쉽게	①	②	③	어렵게
9. 남성적인 편인가요? 여성적인 편인가요?	남성적	①	②	③	여성적
10. 참을성이 부족한 편인가요? 잘 참는 편인가요?	참을성 부족	①	②	③	잘 참음
11. 감정의 변화가 큰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큰 편	①	②	③	적은 편
12. 속 이야기를 잘 드러내는 편인가요?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편인가요?	잘 드러냄	①	②	③	안 드러냄
13.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하는 편인가요? 표현하지 않는 편인가요?	잘 표현	①	②	③	표현안하는 편
14. 가끔 흥분하는 편인가요?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편인가요?	가끔 흥분	①	②	③	이성적으로
15. 덜렁대는 편입니까? 꼼꼼한 편입니까?	덜렁	①	②	③	꼼꼼

All subjects are tested with chi square test and KW test

<별첨2> 소증 설문지

소증 설문지					
1.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십니까?	예□			아니오□	
식사	2. 평소 하루 식사량은 어떻습니까?	많다□	중간□	적다□	일정하지 않다□
	3. 평소 식사 속도는 어떻습니까?	빨리 먹는다□	중간□	천천히 먹는다□	
	1. 소화가 잘 되십니까?	예□		아니오□	
소화	1-1. 소화가 안되어 불편합니까? (1.에서 아니오 경우 추가 문항)	예□		아니오□	
	2. 평소 입맛이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좋음□	좋은 편□	중간□	안좋은 편□
땀	1. 평소 땀을 어느 정도 흘리는 편입니까?	많다□	중간□	적다□	없다□
	2. 땀을 흘리고 난 뒤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쾌□	피곤□		아무느낌 없다□
	1. 평소 대변 습관은 어떻습니까?	규칙적□		불규칙적□	
대변	2. 평소 대변보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빠르다□	중간□		느리다□
	3. 대변의 굵기는 어떤 편입니까?	가는 편□	중간□		굵은 편□
	4. 대변의 굳기는 어떤 편입니까?	딱딱함□	중간□		무름□
	5. 대변의 양상은 어떤 편입니까?	설사□	변비□	변비설사교대□	음식따라 다름□ 보통□
	6. 대변을 볼 때 또는 보고나면 시원합니까?	시원하다□			시원하지 않다□
소변	1. 평소 소변의 세기는 어떻습니까?	세다□	중간□		약하다□
	1. 평소 추위, 더위 어느 것이 더 싫습니까?	추위□	더위□	모두 싫다□	모두 괜찮다□
한열	2. 손이 차가운 편입니까? 따뜻한 편입니까?	손이 따뜻하다□	중간□	손이 차다□	잘 모름□
	3. 발이 차가운 편입니까? 따뜻한 편입니까?	발이 따뜻하다□	중간□	발이 차다□	잘 모름□
	4. 배가 차가운 편입니까? 따뜻한 편입니까?	배가 따뜻하다□	중간□	배가 차다□	잘 모름□
음수	1. 평소 물을 어느 정도 마십니까?	많다□	중간□	조금□	조금씩 자주□
	2. 평소 마시는 물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주로 따뜻한 물□		주로 찬물□	가리지 않고 마신다□
수면	1. 평소 꿈은 많이 꾸십니까?	매우 많다□	많다□	조금□	없다□

All subjects are tested with chi square test. ; These subjects are ranked and tested with KW test